서효민 서율 SEOYUL

서울 기반 스몰 프레스 비현실 BeHyunsil을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서효민입니다. 비현실은 '현실이 아닌 것'과 '현실로 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수공예적 실천을 바탕으로 리소그래피 인쇄 그래픽 진(zine)을 통해 현재적 이슈와 지역성에 대해 고민하며, 드로잉·이미지·텍스트를 함께 다루는 비주얼 내러티브를 탐구합니다.

Seo Hyomin is a Seoul-based graphic designer and founder of the small press BeHyunsil. BeHyunsil carries a double meaning: something that is not reality, and becoming reality. Working from a self-produced, hand-made practice, she uses risograph-printed graphic zines to think through contemporary issues and locality, exploring visual narratives that bring drawing, image, and text together.

이 옷은 한국의 김장 조끼에서 시작해 영국의 뉴 로맨틱을 관통한다. 김장 조끼는 계절노동을 위해 이름 없는 여성들이 손수 지어 입던 옷으로, 스타일이 아니라 필요가 만든 형태였다. 1980년대 런던 블리츠 클럽의 뉴 로맨틱 역시 젊은이들이 스스로 옷을 지어 입으며 아름다움을 탐구했다. 두 흐름 모두 자기 손으로 옷을 짓는다는 점에서 같은 뿌리를 가진다. 이 조끼는 인쇄기를 돌리고 종이를 나르고 재단하고 제본하는 제작자의 옷이면서, 리본과 러플로 스스로를 장식하는 몸이다.

This garment begins with the Korean kimjang vest and runs through Britain's New Romantic movement. The kimjang vest was hand-made by nameless women for seasonal labour, a form shaped by necessity, not style. The New Romantics of 1980s London's Blitz Club were no different: young people made their own clothes, in pursuit of beauty. Both movements share the same root: making one's own clothes by hand. This vest is made for a maker's body, one that runs the press, carries paper, cuts and binds, while also being a body adorned in ribbon and ruffle.